

## 국제개발의 인류학적 연구와 평가 및 정책 참여:

### 국제개발 인류학을 위한 시론\*

이태주\*\*

#### 1. 국제개발과 인류학

식민주의가 인류학을 배태시킨 권력구조였다면 발전문제는 현대 인류학의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였다. 발전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정치 경제적 논리였고, 이념적 동기였으며 현실을 구성하는 영향력 있는 개념이 되었다. 19세기에는 사회 진화 개념에 의해 문명과 야만의 두 세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정당화하였다면, 20세기는 발전이라는 개념에 의해 서구와 비 서구의 두 세계를 지속시킬 수 있었고, 발전과 저 발전, 제1세계와 제3세계를 구분함으로써 서구의 지식과 권력체계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특히, 푸코(Foucault)의 지식과 권력 논의에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탈구조주의 인류학자들은 발전의 개념을 서구 사회의 재현체제(regime of representation)로서 분석하고,

\* 본 연구는 2004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교수

세계은행과 선진국의 개발 프로그램이 비서구 사회에 대한 헤게모니적 통제와 개입을 확장시키고 일방적 지식과 세계관을 정당화하였음을 지적하였다(Ferguson 1990; Escobar 1995; Mehta 2001). 발전 담론은 서구의 과학적인 지식과 비서구 사회의 무지한 속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발전의 문화는 주민들의 토착 지식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Hobart 1993).

인류학자들은 그 동안 발전에 관해 두 가지의 상반되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한편으로, 전통적인 개발인류학(development anthropology) 영역에서는 인류학자들이 극단적인 모더니스트 입장을 견지하여 개발 전문가로 활동하였고, 다른 한편에서 인류학자들은 발전이라는 담론의 해체와 서구 지배체제의 비판적 성찰을 주창함으로써 발전인류학(anthropology of development)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발전 문제는 인류학자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사악한 쌍둥이’와도 같은 것이었고, 동시에 인류학자가 현실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덕적 명제이기도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식민지 시기 이후로 줄곧 인류학자들은 식민지 행정과 발전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전후에는 국제개발의 영역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대안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많은 ‘응용 인류학자들’<sup>1)</sup>은

---

1) 응용 인류학(applied anthropology)이라는 개념은 1881년에 Pitt-Rivers가 처음 사용하였고 1906년 옥스포드 대학에 학위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식민지 상황에서 인류학은 Temple경에 의해 실용과학으로 추창되었다(Gardner and Lewis 1996: 29). Radcliffe-Brown은 1920년대 초에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 사회인류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응용인류학 과정을 개설하였고, 1930년에 발표한 논문 “Anthropology as Public Service and Malinowski’s Contribution to It”에서 응용 인류학이라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사용하였다. 반면, 실용 인류학(practical anthropology)이라는 개념은 이미 1860년대에 런던 인류학회의 창시자인 James Hunt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Eddy and Partridge 1987: 4) 말리노브스키는 1929년에 실용인류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E.B.Tylor는 인류학을 정책과학(policy science)으로 간주하였고 인류학이 인간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 인류학은 식민지 간접통치를 위해 나이지리아, 피지 등에서 식민지 행정에 사용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34년에 인디언 재조직법이 만들어지면서 인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동원되었다. 제2차 대전 기간 중인 1941년에 미국 응용 인류학회(SFAA)가 창립되었고 1949년에 응용 인류학회 학회지는 Human Organization으로 개편되어 출판되었고 인류학자

원주민들과 농민, 도시 빈민, 부랑자들과 여성들의 권익과 정체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덕적 명분과 실천적 요청에 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참여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작업에 골몰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상아탑의 '순수하고 진정한 인류학자'들은 대체로 발전문제를 저급한 수준의 학문으로 간주하여 회피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인류학자들을 사회 공학자들 혹은 행정에 동원된 기술 전문가들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류학과 발전 문제간의 불편한 내통관계와 이중성에 대한 상반된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은 현실적으로 쌍둥이와 같은 발전 문제를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인류학적 방법론과 지식은 발전문제의 성찰과 대안적 발전 정책 및 지식의 재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Gardner and Lewis 1996; Ferguson 1997; Gow 2002). 이 연구에서 필자는 기존에 양분된 개발인류학이나 발전인류학이라는 두 가지의 입장이 상호 수렴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양자가 모두 현장연구에 입각한 인류학적 연구방법론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발전문제를 경제학이나 인구학과 같이 보편주의 입장에서가 아닌 맥락주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대안적 발전 지식과 모델을 발견하는 실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발전 담론의 해체는 발전의 다양성, 유연성, 다원성 및 이질성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였고, 역으로 실용적 입장에서의 발전 정책연구는 대안적 발전담론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태주 2003: 141).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국제개발 분야에서 인류학

---

의 윤리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트루만 대통령의 포인트 포(Point Four) 프로그램으로 응용 인류학자들이 대거 해외 기술원조 프로그램과 해외 정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을 중심으로 인류학자들의 개발 프로젝트 설계와 영향평가, 타당성조사 등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1983년에는 미국 인류학회에 실용 인류학회(NAPA)가 창립되었고 응용 인류학회와 함께 양대 분과를 형성하게 되었다. 응용인류학자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1986년에는 미국 인류학 박사학위자의 51%가 학계 외부에서 취업하였고, 1997년 미국 인류학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박사학위자 중 29%가 학계 외부에서 인류학을 하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Fiske and Chambers 1997: 283-6, AAA 1997: 314).

적 지식과 방법론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최근의 국제개발 정책과 전략에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개발 NGO와 시민사회가 지니는 역할과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국제개발 인류학(anthropolog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현실적 가능성과 참여 방안 및 그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응용인류학은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를 망라할 뿐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와 '응용'이라는 잘못된 인식론적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발전인류학이나 개발인류학이라는 구분도 양자간에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지식체계와 방법론 및 실천성을 감안할 때 이제는 두 분과를 수렴할 새로운 분과 용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제개발 인류학이라는 분과학문을 제시함으로써 인류학적 지역지식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국제개발이라는 국제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개발에서 발전의 개념과 목표 및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인류학적 방법론과의 관련성에서 고찰하고, 최근 '발전의 대리자'처럼 인지되고 있는 시민사회와 개발 NGO의 사례를 통해 이들 시민사회의 개발정책에서는 인류학적 관점과 방법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국제개발 인류학의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국제개발에 관한 인류학자들의 실천적 연구 및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국제개발이란 '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되는 국제개발 원조에 참여하는 국가와 국제기구,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및 여타 제도들과 관행의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즉, 국제개발이란 국제개발 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진행되는 국가간, 시민사회간의 개발정책과 원조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제개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은 무엇인가인데, 인류학은 다른 어떤 학문 분과보다도 오랜 동안, 다양한 지역 전통과 맥락에서 이러한 ‘발전’의 개념과 개발 전략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국제개발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는 발전의 통문화적이고 보편적 의미와 상대적이고 특수한 맥락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 국제개발 정책의 변화와 인류학 방법론

국제개발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델란드 등 과거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국가들이 독립한 피식민지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국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시작한 것은 전후 유럽의 복구와 부흥을 위해 계획된 마샬플랜에 의해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동원되면서부터이다. 1949년에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저개발된 지역의 성장과 개선을 위해 과학적 발전과 산업의 발달을 활용하는 대담한 프로그램”인 포인트 포(Point Four)를 발표하면서 세계는 선진 개발국과 저개발국으로 구분되었고, 국제개발은 곧 저개발국의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난 1990년대까지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기구들은 발전을 경제성장에 의해 위에서 밑으로 파급되는 효과(trickle-down effect)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파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성장이론은 점차 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네오 맑시스트 이론가들은 경제발전을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보았으며, 저개발은 불균등 교환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로써 근대화론 혹은 경제성장론은 좌파적 저발전 이론인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생산양식 접합이론 등과 한동안 양립하면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

대 후반부터 대두된 포스트모더니즘과 제2세계인 구 공산권 블록의 해체로 인해 이러한 거대이론들도 더 이상 발전 정책과 전략수립에 적용되지 못하고 대안적 발전 개념들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인류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및 문화변동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어왔다. 첫째, 경제 변화의 사회 문화적 영향, 둘째, 개발 프로젝트의 사회 문화적 영향, 셋째 원조산업의 내부 기제와 담론들이다(Gardner and Lewis 1996: 52-76). 이들 각 영역에서 인류학적 연구성과와 방법론은 국제개발 정책과 담론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경제변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도시화와 노동이주, 탈 부족화, 농업의 양극화, 자본주의와 세계체제에 따른 지역 사회의 저항과 문화변동, 생계경제의 여성화와 성별 노동분업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두번째로 개발 프로젝트의 사회 문화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왜 개발사업이 실패하였는가에 대한 비판적 현장연구를 통해 대안적 발전 개념이 중점적으로 제기되었다. 셋째로 원조산업의 내부기제와 담론 연구에서는 국제개발의 상이한 제도와 주체들의 실제적 의사결정 과정과 원조행정 및 정책에 대한 담론분석이 행해졌다. 이러한 인류학적 연구들에 의해 경제 하부구조 중심의 위로부터의 대규모 국가 개발 프로젝트들은 점차 풀뿌리 방식의 개발, 주민 참여형 개발, 생계와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개발, 인적자원개발,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개념과 전략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처럼 전후 국제개발이라는 새로운 연구 주제에 있어서 인류학적 지식은 핵심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부터는 국제개발의 제도와 구조에 인류학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세계은행과 여타 국제개발 기구들에서 인류학자들을 위한 직위가 제도화됨으로써 국제개발 인류학은 정점에 달하였다고 평가된다(Cernea 1995: 340-1). 1980년대와 90년대에 국제개발 분야에서 주민 지향형 발전 (people-oriented development) 담론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및 주변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인류학자들에게 부여된 새로운 역할은 더욱 부각되었다. 근대화의 목표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었던 문화적 변수들과 빈곤층과 그들의 문화적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개발원조 프로젝트에서 점차 중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그러면 실제로 국제개발 분야에서 인류학자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Gow(2002)는 인류학자들이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이 연구하는 주민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대변하여 로비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설명한다. 인류학자들은 사회공학으로부터 개발 프로젝트의 사회문화적 적합성 평가와 개발원조기관들이 인간적, 문화적, 제도적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 사회분석을 통해 구조적 요인을 해명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영향을 강조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의 인류학자인 Cernea(1995)는 경제 기술중심주의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고 위로부터의 경제중심적 방법론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발전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문화를 잔여물, 찌꺼기 같은 영역에서 중심 영역으로 진입시켰다. 세계은행에는 1974년에 1명뿐이었던 인류학자가 현재는 6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1973년 세계은행 맥나마라 총재가 등장하면서부터 발전 패러다임에 변화가 생겼다. 이후의 국제개발원조는 대체로 주민들 우선의(putting people first) 빈곤퇴치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1977년 영국에서는 발전인류학위원회(DAC)가 설립되었다. 뉴욕에서는 1976년에 발전인류학 연구소(IDA)가 창립되었으며 그 이후 개발 NGO의 급증으로 국제개발 인류학의 영역은 급속히 증대되었다.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최초 고위직 인류학자였던 Hoben(1982)이나 Horowitz(1996) 등에 의하면 인류학자들은 개발원조의 프로그램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모든 문제해결 방식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이문화간 매개자(intercultural broker) 역할을 담

당한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emic view) 사업의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특히, 이주와 재정착 계획, 농경, 하저 개발, 자연자원 개발, 비공식 경제 분야 등에서 인류학자의 역할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간혹 인류학자들은 국제개발 정책의 근본 목표에 대하여 도전적이었고 때로는 ‘기인과 같은 이야기’를 하여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기구에서 조직의 일에는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의 기인 같은 이야기도 차츰 국제개발에서 문화적 변수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면서 프로젝트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인류학자들의 관점이 공식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인류학자들의 총체적인 관점은 각종 국제개발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인류학의 참여관찰 방법과 행위자 중심 관점(actor-oriented perspective)은 농촌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매우 적절하고 가치 있는 관점들을 제공하였다. 인류학적 현장연구 관점과 방법들은 참여적 농촌평가(participatory rural appraisal), 참여적 빈곤 평가(participatory poverty assessment), 사회적 건강 평가(social soundness assessment), 이해 당사자들 분석(stakeholder analysis), 다지역 개발프로젝트 비교분석, 사회문화적 적합성 분석, 권리에 기초한 발전 접근(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개발정책의 수립과 평가 기법으로 응용되었다. 미국 응용인류학회는 세계 각 지역에서 인류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수백 건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평가 기법과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류학자들은 인적자원 개발이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같은 주요한 개발전략들을 거시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역 수준에서 적용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기도 하였다. 개발 전략들은 모든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동일하게, 모든 개발사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국지적 차원에서의 개념의 변용과 개발과정의 차이를 주목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 사례들은 이 개념이 국지적으로 어떻게 다양하게 수용되는가를 보여준다. 발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은 1987년 부룬트란드 보고서 이후 발전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담론이 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를 거쳐 모든 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수행되며, 평가되어야 하는 일종의 국제적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개념은 대체로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최근까지도 사회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개발사업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하였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개발계획이 물리적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지만 개발계획에 의해 충격을 받고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야 하며 정착지를 박탈당하고 재 이주되기도 하는 주민들의 뿌리 채 뽑힌 삶과 생계방식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학자들의 지속가능한 생계(sustainable livelihood) 방식에 대한 관심은 지속가능성 개념을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인류학자들에게 지속가능성은 주민들이 생활양식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개념을 지속, 혁신, 스트레스와 충격에 대한 반응, 다양성이라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평가하려고 시도하였다 (Stone 2003: 93-4).

Gow(2002)는 발전 인류학으로부터 참여 인류학(engaged anthropology)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인류학의 도덕적 명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류학자들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류학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모델에 기초하는 학문으로부터 점차 도덕적 모델에 기초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인류학자가 단순한 구경꾼인가 아니면 증인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는 인

류학자들의 특별한 위치와 책임, 피해자 편에서는 변호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인권, 번영의 지방적 해석과 책임있는 복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자국 주민들과 먼 이방인들에 대해 책임을 지니며 바로 여기에서 참여가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인류학은 국제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주민들의 권한 강화에 의한 주체화, 시민사회 강화, 가치 지향적인 발전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류학은 도덕적 담론이었다.

### 3. 국제개발 NGO와 시민사회의 에드보커시(advocacy) 전략

최근 국제개발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의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점차 시민사회(civil society)와 민간부문을 적극 동원하고 활용하는 포괄적 발전전략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옥스팜(Oxfam)과 노르웨이의 NPA (Norwegian People's Aid)라는 두 개의 국제개발 NGO의 사례를 통해 시민사회가 국제개발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발전의 대리자'로 부상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선진국 개발 NGO의 사례를 통해 21세기의 국제개발은 시민사회를 주요 동력과 매개로 하여 전개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개발 인류학과 시민사회 인류학<sup>3)</sup>이 만나게 되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필자는 2004년 1월과 4월에 각각 옥스팜과 NPA를 방문 조사한 바 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선진국 개발 NGO의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 NGO와 정부간에 국제개발 분야에서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착수된 것이다.

3) 시민사회 인류학, 혹은 시민 인류학(civil anthropology)은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니다. Heam(2001)의 주장과 같이 인류학자들은 지금까지 항상 시민사회를 연구하여 왔다. 마을, 이웃관계, 빈민가와 농촌조직, 교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NGO, 학교 등의 모든 영역이 광의의 시민사회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란 사회조직, 사회관계, 계급과 갈등, 행위주체와 정체성, 공동체, 자발적 결사체와 자율성, 참여와 연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전통적인 인류학의 '빵과 버터'와도 같은 친숙한 개념인데, 시민사회 연구

## 1) 옥스팜

영국의 옥스팜은 2차 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그리스인들의 기아상태를 돕기 위해 시작된 국제구호단체로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개발 NGO들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옥스팜은 다섯 가지의 국제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생계, 질적인 교육과 보건의료, 재난과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heard), 성 평등과 다양성에 기초한 평등권이 그것이다. 옥스팜은 이러한 다섯 가지의 정책 목표별로 국제개발원조를 수행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총 1억 9천만 파운드(약 3억 4천만 미 달러)에 달하는 국제개발 사업비를 지속가능한 생계분야에 25% 지출하였고, 질적인 교육과 보건의료에 15%, 재난과 폭력으로부터 보호에 45%,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리에 10%, 평등권에 5%를 배당하여 집행하였다. 2004년 현재 옥스팜에는 정규직원이 1,700여명이고, 해외 계약직원이 2천여 명, 자원봉사자가 2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1개 국가에 국제 옥스팜(Oxfam International)이 조직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부(DFID)는 옥스팜과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약 1,300만 파운드의 예산을 국제개발사업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의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에서 시민사회를 통한 지원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옥스팜은 최빈국에 대한 개발원조 전략에서 수혜국의 자생적인 시민사회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공여국과 국제기구 및 수혜국 정부에 대한 여론형성과 압박을 위한 에드보커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디오피아에서의 사례를 보면, 옥스팜은 215개의 개발 NGO가 회

---

에 인류학의 기여가 거의 없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Gow 2002: 307). 특히, 국제개발의 주요 동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개발 NGO들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CRDA(Christian Relief and Development Association)라는 이디오피아 국내 개발 NGO들의 연합조직을 통해 중요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을 압박한다. 옥스팜은 1974년부터 이디오피아에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장기적인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2001년부터는 캠페인과 에드보커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옥스팜은 이디오피아의 부채 탕감과 커피 생산자들을 위한 공정 가격 정책을 위해 공여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에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2년에는 세계적인 커피 생산 기업인 네슬레(Nestle)사를 대상으로 4만 여명이 참가한 이메일 항의 행동을 통해 기근에 시달리는 최빈국 이디오피아 정부에 대한 6백만 달러의 보상 청구를 철회하도록 한 바도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공정무역(fair trade) 캠페인 활동을 통해 커피 가격의 폭락으로 커피 생산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른바 ‘굉음 운동’(Big Noise Campaign)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바바라 스톡킹(Barbara Stocking) 옥스팜 사무총장은 2003년 11월 이디오피아를 방문하여 이디오피아 수상과의 면담에서 “빈곤의 근본적 원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토지개혁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5천 6백만 명에 달하는 이디오피아 주민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토지소유권, 식량원조예의 의존을 중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및 생계를 위한 대안적 농업에 대하여 우리는 광범위하게 논의해야 한다.

옥스팜의 한 전문가는 옥스팜이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국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케냐 Wajir 지방에서 1994년부터 9년간에 걸쳐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첫 단계로 4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5개의 목축협회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

과 함께 9개의 지방협회들과 일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들과도 일을 함께 했습니다. 목축협회가 힘과 자신감을 키워가면서 옥스팜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옥스팜 직원들이 아닌 지역 NGO 들을 통해 다른 지역에 있는 10여개의 목축협회를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민들이 일하는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 시민사회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빈곤퇴치 계획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2: 123-6)

옥스팜의 대표적인 개발사업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수행되는가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디오피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개발 프로젝트 명칭은 모두 특정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계 프로젝트이다. 정부와 국제개발 원조기구들의 개발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제반 사회경제 하부구조의 건설, 건축, 개발, 설치가 주된 것임에 비하면 개발 NGO의 사업은 풀뿌리형, 생계지원형, 주민참여형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프로젝트 계획서에는 단계별 목표에 따라 현지의 지역 NGO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구체적 방안이 명시되고 있으며, 사회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바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달려 있다는 관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Oxfam GB 2002a; 2002b).

이러한 개발 NGO의 국제개발 정책과 전략의 변화는 최근 옥스팜에서 발간한 정책 보고서 *From Donorship to Ownership*(2004)에서도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옥스팜은 33개 국가에서 빈곤감축전략계획(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에 따라 최빈국 시민사회의 파트너들을 지원하고 있다. 옥스팜은 빈곤 여성들과 주변화된 계층의 '소리 빈곤(voice poverty)', 즉,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부정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옥스팜은 이 보고서에서 빈곤과 사회영향분석(PSIA: 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에 있어서 조차도 빈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온두라스의 경우에 IMF 대표단이 시민사회 대표

들과 만나지도 않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례들도 있었음을 이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옥스팜은 국제개발이 공여주의(donorship)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개발과정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주권주의(ownership)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노르웨이의 NPA

한편, 노르웨이의 NPA는 노동조합 운동에서 시작된 인도주의적 개발 NGO로서, 특히 지뢰제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NGO이다. NPA는 30여 최빈국에서 인도주의적 구호사업과 개발원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난민 수용소와 자원봉사대 운영, 응급구호, 산악구조대, 재난구호, 인종차별 반대운동, 노인과 장애인 지원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NPA는 12,000여 회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회원단체로서 사업비는 이들로부터의 기부금과 회비, 복권 수입금 및 미국 USAID와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등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으로 시작된 NPA의 사회 민주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NPA의 국제개발 목표는 연대(solidarity)이며, 인간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는 '권리에 기초한 발전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NPA의 국제개발 프로그램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노르웨이 정부가 1999년 12월에 발표한 인권 행동계획에 의하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은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각 파트너 국가와의 개발협력에 필수적인 골격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NPA 2002:17). 이러한 권리에 기초한 발전 접근은 교회나 옥스팜과 같은 자선단체들의 자선(charity) 원조와는 달리 개발원조가 정의와 권리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특히 주변화된 계층의 권익 강화와 개발과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NPA가 국제개발에서 핵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는 18개의 세부 영역<sup>4)</sup>으로 분류되어 국가별 개발사업과 지원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인권에 기초한 개발전략에 의해 NPA는 국제개발의 조직적 전략으로서 건강한 시민사회의 육성과 참여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수혜국의 지역 NGO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력, 지원하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NPA 2001).

개발 NGO를 통한 국제개발사업의 확산은 전통적인 개발원조 방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통적인 개발원조가 국가간에 물질 자원의 흐름을 통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개발 NGO를 통한 국제개발은 시민사회간의 연대와 파트너십을 통해 여론정치를 주도하고 정부가 올바른 거버넌스를 통해 빈곤과 차별을 퇴치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된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개발 NGO를 통한 국제개발은 물자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조달(delivery)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개발과정에 있어서 수원국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개발원조 방식이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주도되고 부여되는 개발과정이라면 시민사회를 통한 개발원조는 수많은 수혜국의 지역사회 조직과 NGO들이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의 주체와 주도권을 주민들에게 귀속시키는 참여적, 민주적 개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 NGO들의 국제개발 활동에 있어서도 인류학자들은 국제개발에의 직접적 참여와 개입을 통해서 뿐 아니라 정책연구를 통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선 인류학자들은 개발 NGO를 통해 원주민, 주변화된 계층과 소수 집단에 대한 옹호 인류학(advocacy anthropology)

---

4) 1) 여성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17국 사업지원), 2) 원주민들의 토지소유권(10국), 3) 원주민과 소수자의 권리 및 자결권(12국), 4) 민주주의, 참여와 결사권(8국), 5) 표현의 자유(3국), 6) 발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사회 경제적 권리(10국), 7) 식량과 깨끗한 물(5국), 8)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6국), 9) 교육권(8국), 10)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권리(7국), 11) 아동권(5국), 12) 자유와 인간 안보(4국), 13) 안전한 환경권(4국), 14) 난민들의 귀환권(4국), 15) 차별로부터의 자유(3국), 16) 장애자 권리(3국), 17) 노인 권리(1국), 18) 에이즈 감염자들의 권리(3국)

을 실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류학자 Thayer Scudder와 일군의 인류학자들은 거대 댐 건설 프로젝트가 원주민의 집단 이주와 재 정착을 수반하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NGO를 조직하고 댐 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마존유역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원주민들의 생존권을 옹호하는 개발 NGO인 문화적 생존 그룹(Cultural Survival Group)의 활동도 인류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국제개발이라는 거대한 원조 프로그램의 희생자인 원주민들과 소수집단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Bodley 1990)는 국제개발과정에서 인류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국제개발 NGO를 통해 인류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했던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권과 경작권을 주민들에게 되돌리도록 노력하기도 하며, 성 평등, 인권 옹호, 환경보전과 같은 이슈들을 주창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내생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은 개발 NGO에 대한 제도문화 연구를 통해 ‘NGO 신화’를 해체하기도 하며, 개발 전문가와 컨설턴트들의 관료적 문화를 참여관찰을 통해 비판함으로써 국제개발의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Fox 1998; Crewe and Harrison 1998).

#### 4. 국제개발 인류학의 가능성과 현실 참여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학은 식민지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발전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간접으로 현실에 개입하고 참여하여 왔으며, 발전인류학과 개발인류학은 국제개발 분야에서 이미 상당수준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면 향후 국제개발 인류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실천적 학문분야의 현실적 가능성과 전망은 어떠한가?

국제개발 인류학이 하나의 하위 분과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

구 분야와 대상, 방법론과 이론의 정립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개발 인류학은 국제개발 원조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가, 시장(민간부문), 시민사회간의 다중적이고 복잡한 제도와 관행의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 인류학은 인류학적인 지식과 관점 및 방법론을 국제개발 프로그램에 직접 적용하는 개발인류학의 방법론으로부터 발전이라는 개념과 담론의 구조를 해체하는 발전인류학의 방법론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전통에 기초하여 인류학자들은 두 가지의 연구영역과 방법으로 인류학적 지식과 방법론을 국제개발에 적용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는 발전 정책과 발전 전략에 관한 담론분석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원조기구와 조직, 사업과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시도되는 제도 문화지(institutional ethnography) 연구방법이다. 전자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인류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정책을 담론의 헤게모니적 지배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석은 국제개발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간과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개발에 관한 제도 문화지는 정부, 국제기구, 원조기관, 다자은행과 개발 NGO들과 같은 원조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가를 심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담론의 생산과 타협, 조정과정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예를 들면, 기존에 분석적, 수량적 측정에 의존하는 정형화된 평가모형과는 달리 문화지 연구방법을 평가 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문화지 평가(ethnographic evaluation)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법의 평가방법은 참여관찰과 참여적 실행 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을 토대로 국제개발 사업을 심층적, 문화 기술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발전에 대한 지역지식과 관점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990년

대 후반부터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지식경영 혹은 효과적인 학습을 통한 공적 책무(accountability)가 강조되고 있으며, 발전에 관한 지식이 적극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관리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경영과 효과적 학습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가분석과 피드백이다. 이를 평가 피드백(evaluation feedback)이라고 하는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하면, “평가 피드백이란 평가 정보를 새로운 개발 활동에 적용하기 위해 공표하고 배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폭넓게 정의되며,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학습된 교훈이 새로운 운영체계에 통합되도록 할 수 있다”(DAC 2001: 60)고 함으로써 국제개발에 있어서 평가와 제도적 학습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평가 피드백과 제도적 학습과정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인류학적 지식과 관점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van Willigen(1993)에 의하면, 인류학적 실천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개입 인류학(intervention anthropology)으로서, 여기에는 실행 인류학(action anthropology), 연구개발 인류학(R&D anthropology),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옹호 인류학, 문화적 중재(cultural brokerage) 및 사회적 마케팅(social marketing)등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정책 연구로서,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 기술개발연구(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문화자원평가(cultural resource assessment)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살펴보면, 국제개발 인류학은 인류학적 실천의 양대 영역인 개입 인류학과 정책연구를 모두 포괄하는 중첩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즉, 국제개발은 최빈국 혹은 저개발국의 빈민과 여성, 원주민 및 주변화된 계층에 대한 장기간의 계획적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전’이라는 세계적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평가와 원조 전략 및 발전정책에 관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입과 연구

라는 자의적인 구분은 지난 세기 개발인류학과 발전인류학의 구분이 지니는 한계와 동일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양자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국제개발 인류학의 방법론 모색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개발의 영역에서 개입 혹은 실행 인류학과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과 스톡홀름 대학 사회인류학부의 공동 협력 프로그램이다. SIDA와 스톡홀름 대학 사회인류학부의 발전연구소는 1976년부터 국제개발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1995년도에 다시 갱신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sup>5)</sup>.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스웨덴 국제개발청과 스톡홀름 대학 인류학부의 협력에 의해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적 지식을 국제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사이클에 따라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시적 적용에서부터, 제도적인 자문 역할, 특정 국가의 개발 프로그램 연구와 비교연구, 초국가적 국제개발 연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광범한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에 개입할 수 있었다. Sorenson and Gibbon (1999)의 평가에 의하면, 스톡홀름 대학 인류학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단기 현장연구 기법, 신속한 평가 기법과 참여적 심사 기법과 같은 방법론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고, 전통적인 미시적 농촌사회 연구를 통한 농촌개발사업의 조사연구, 개발과정에서의 대중적 참여 (popular participation) 연구(1987~96), 거시 인류학적 연구<sup>6)</sup>(1992~

---

5) 동 협정 문서에 따르면, 양 기관간 공동 협력의 기본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스웨덴 개발협력의 사회 문화적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인류학적 전문지식을 적절하고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SIDA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발전 인류학 분야에서 스톡홀름 대학 뿐 아니라 여타 스웨덴 대학 인류학부들의 제도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전 문제에 관심있는 스웨덴 인류학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을 제공하며,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사회 인류학적 전문지식과 인류학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Sorensen and Gibbon 1999).

6) 국제개발에서 거시 인류학(macro anthropology)이란 국별 전략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거시 경제 보고서에 잘 통합될 수 있는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 문화, 정치적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거시 인류학에서는 보통 6주 이내의 제한된 기한 내에 현장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지 연구자를 연구에 포함시켜 활용하며, 체계적인 지역적 표본조사와 현장연구 이전에 폭넓은 문헌연구가 이루어진다.

97), 성 평등 연구(1992~98), 동아프리카 해안지역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SIDA는 스톡홀름 대학 인류학부 학생들에게 2-3개월 동안 국제개발의 현장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단기 현장연구 프로그램(Minor Field Study)을 제공하였으며, 인류학자를 채용하고 자문위원회나 SIDA 직원 및 전문가들의 훈련에 인류학자들을 초빙함으로써 제도적인 인류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면, 국제개발 분야에서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살펴보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류학적 연구가 국제개발 정책과 전략에 적용된 사례도 없고,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나 평가 연구 프로젝트도 착수된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적 책무와 국제개발에 대한 요청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와 같은 전후 복구 및 인도주의적 긴급구호사업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개발의 자금 규모는 수년 사이에 몇 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7)</sup>.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NGO들도 본격적으로 국제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시민사회를 통한 국제개발에의 참여 방안이 전략적으로 적극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sup>8)</sup>.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의 국제개발 사업 참여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의 추진 주체가 다양화하고 관 주도의 정부간 국제개발사업이 점차 민간과 시민사회를 통한 협력으로 이행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 정책의 수립과 수행과정 및 평가에 있어서도 상이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

7) 우리 정부는 2002년부터 아프카니스탄에 3년간 4천 5백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이라크에는 2003년부터 5년간 2억 6천만 달러를 전후복구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제공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01년도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총 규모가 2억 6천만 달러이고 무상원조는 5천 5백만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8) 200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개발 NGO는 36개이고, 이들의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530억 원 정도이다. 이들 국제개발 NGO를 예산 규모별로 볼 때,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선한 사람들, 굿네이버스, 한민족복지재단 등이 연간 20억 이상의 재원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경험과 재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3)

컨설턴트와 연구자들에 의한 객관성 있고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인류학적 지역지식과 타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적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하는 효과적인 국제개발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개발 인류학의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인류학자들의 실천적 참여와 연구가 적극 요청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류학자들이 국제개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발 프로젝트의 평가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개발도상국에서 수행하여 이미 종료된 수백 건에 달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유상, 무상원조사업에서 모두 마찬가지이다. 개별 프로젝트 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중점 협력 대상국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country program)도 전혀 평가된 바 없으며, 심지어는 국가 지원사업 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들이 선정되고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작업은 관련 분과학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젝트 현지평가 활동에 인류학자의 역할이 지대한 것은 물론이다.

두번째는 국제개발 프로젝트의 선정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사회문화 영향평가이다. 그 동안 타당성 조사는 원조 행정가 또는 기술적 전문가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선진국의 개발사업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뿐 아니라 사회문화 영향평가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프로젝트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문화 영향평가에 있어서 인류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

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문화관광부는 이미 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문화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문화영향평가의 전문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실천적 인류학 프로그램이 시급히 요구되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류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개발 연구 분야는 다양한 국제개발의 행위 주체와 조직에 대한 문화지 연구 및 정책연구이다. 공여국과 수혜국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분석하는 데는 문화지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적 연구방법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상이한 지식체계와 관행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평가 피드백 함으로써 개발정책과 사업의 질적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한국적 상황에서 국제개발 인류학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참여 방안은 무한히 열려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에서 인류학의 사회적 기여와 방법론적 적실성, 효용성이 논의될 때마다 제기되는 바이지만, 인류학이 대학 이외에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탈출구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개발 인류학은 하나의 대안과 출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소수의 인류학자들이 개발경제학이나 공학, 보건학, 환경학, 인구학과 같은 다른 학문 분과의 전문가들보다 실용적 수준에서 국제개발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다. 스웨덴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초의 협력은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개발에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방법론과 이론적 수준에서도 인류학이 기여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인류학의 제도적 능력 구축의 기회가 국제개발의 요청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개발 인류학이 지나는 한계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를 위한 인류학자’ 라는 비판과 ‘인류학적 지식의 도구화’ 라는 비

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필자는 인류학자가 국제 개발의 전문가로서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인류학자로서의 거리두기와 발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발인류학과 발전인류학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류학적 지식과 방법론은 서구 중심의 지식 체계와 민족국가 이념을 보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대화하고 맥락화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인류학적 지식은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발전에 저항하는 데에도 적용되며, 국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주민과 시민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이태주

- 2003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9(1):139-174.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 2002 『NGO의 해외원조사업 발전방안』, 서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2003 『세계 빈곤지역의 한국 NGO』, 서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1997 *The 1997-1998 AAA Guide*, Arlington: AAA.

Bodley, John H.

- 1990 *Victims of Progress*,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Cernea, M.

- 1995 “Social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Anthropology,” *Human Organization* 54(3):340-352.

Crewe, Emma and Elizabeth Harrison

- 1998 *Whose Development? An Ethnography of Aid*, London: Zed Book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 2001 *Evaluation Feedback for Effective Learning and Accountability*,  
Paris: OECD/DAC.

Eddy, Elizabeth and William L. Partridge eds.

- 1987 *Applied Anthropology 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Escobar, Arturo

- 1995 *Encountering Development: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Third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Ferguson, James

1990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7 "Anthropology and its Evil Twin". in Cooper e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Social Scienc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Fiske, Shirley J. and Erve Chambers

1997 "Status and Trends: Practice and Anthropolog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Global Practice of Anthropology*, Williamsburg: Studies in Third World Societies.

Fox, Diana Joyce

1998 *An Ethnography of Four Non-Governmental Development Organizations*,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Gardner, Katy and Lewis, David

1996 *Anthropology and the Post-Modern Challenge*, Chicago: Pluto Press.

Gow, David D.

2002 "Anthropology and Development: Evil Twin or Moral Narrative?," *Human Organization* 61(4): 299-313.

Hearn, Jonathan

2001 "Taking Liberties: Contesting Visions of the Civil Society Project," *Critique of Anthropology* 21(4):339-60.

Hobart, Mark, ed.

1993 *An Anthropological Critique of Development: The Growth of Ignorance*, London: Routledge.

Hoben, Allan

1982 "Anthropologists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1:349-79.

Horowitz, Michael

- 1996 "On not Offending the Borrower: Self-ghettoization of Anthropology at the World Bank," *Development Anthropologist* 14(1&2):1-12.

Mehta, Lyla

- 2001 "The World Bank and its Emerging Knowledge Empire," *Human Organization* 60(2): 189-196.

Norwegian People's Aid

- 2001 *Organizational Development as a Strategy in NPA's Development Co-operation*, Oslo: NPA.  
2002 *Human Rights as a Dimension of NPAs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gramme*, Oslo: NPA.

Oxfam Great Britain

- 2002a *Oxfam GB Ethiopia Programme: Proposal for a Country Livelihood Programme 2002/2004*, Oxford: Oxfam.  
2002b *Oxfam GB Ethiopia Programme: Delanta Livelihood Project Proposal 2002/2004*, Oxford: Oxfam.

Oxfam International

- 2004 *From Donorship to Ownership? Moving Towards PRSP Round Two*, Oxfam Briefing Paper 51, Oxfam International.

Sorensen, Ninna Nyberg and Peter Gibbon

- 1999 *The Collaboration between Sida and SAI: The Department of Social Anthropology, Development Studies Unit, Stockholm University*, Sida Evaluation 99/8.

Stone, Priscilla M.

- 2003 "Is Sustainability for Development Anthropologists?," *Human Organization* 62(2)93-99.

van Willigen, John

- 1993 *Applied Anthropology: An Introduction*, Westport: Bergin & Garvey.

<Key concept>: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Civil Society,  
Development Policy, Anthropolog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 **An Anthropological Study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 and Policy Engagement:**

**An Essay for the Anthropolog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ae Joo Lee\*

This article challenges the strong dichotomy between development anthropology and anthropology of development by examining the accomplishment and possibilities of the anthropological studies and policy engagemen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by analysing the meanings of expan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as an emerging agent of development.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o which I refer in this paper is the network of institutions and agencies engaged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nthropological approaches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differ from other disciplinary methods in that the former emphasize participatory and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s and strategies. Not only is anthropological knowledge central to the new subjec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and methods greatly influence

---

\* Assistant Professor, Hansung University

to modify policy discourse, to include local people and civil society in development process. This paper illustrate the cases of Oxfam and Norwegian People's Aid to show how the development visions and strategies are changing rapidly and why civil societies are vital forces to achieve comprehensive development goals.

In this essay, I suggest that anthropologists can contribute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strategies by applying anthropological knowledge and methods in two ways. One is discours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other is ethnographic in-depth study on how international development works in reality in the government aid agencies and NGOs. It is also proposed that there are three main entry points to which Korean anthropologists can participate meaningfull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evaluation work of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feasibility study and socio-cultural impact analysis, and institutional ethnography and policy anthropolog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short, this essay attempt to overcome the tendencies of polarization between applied and pure anthropology, between development anthropology and anthropology of development by exploring the anthropolog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which encompass them and can reconstruct the discourse of development in general and in specific.